

# 조선 설비투자분석체계에 대한 사례연구

박 주 철, 김 선 근

울산대학교 산업공학과

## Abstract

조선산업은 중후장대산업으로 많은 인력과 설비가 투입되어 짧게는 1년 길게는 2 내지 3년에 걸쳐 선박을 건조한다. 선박의 규모는 최소 수만톤 이상으로 이를 취급하는 설비는 대형으로 많은 투자를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조선소의 경우 조선부분만 회사 전체 매출액의 3 %에 해당하는 연간 630억원 정도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구대상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분석지침서로는 '시설투자 계획 작성 지침', '시설투자 심의.검토표 작성방법', '사용가능년수별 금융비용 적용율', '시설투자 심의.검토표' 등이 있다. 지침서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이를 집계관리하는 자본예산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를 최고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러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과 효과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단위시설투자의 품의서 작성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침서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형식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단위부서의 시설투자 담당자조차 이러한 절차와 형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예산관리체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의 중요성에 견주어 본다면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틀림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회사의 지침서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자본예산체계를 DCF (Discounted Cash Flow) 의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침서들은 1988년에 작성된 것을 근거로 수정 보완된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의 지침서에 담겨 있었던 공업경제의 이론적 근거들이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형태로 변해 왔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